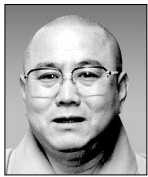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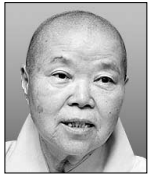
은혜사 1196주년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은 10월 8일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차례 재를, 9일 장건 119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삼보불교음악협회와 함께 10월 8일 청운교 백운교 앞 특설무대에서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했다.



총지종 제66회 추계강공회
총지종 총리원장 우송 정사는 10월 18~20일 서울 총지사서서 내년 사업안 등을 심의하는 제6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승가원에 복지타운 건립금 전달
조계종 전국부기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4일 운문사 스님들과 함께 승가원에 자비복지타운 건립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학부모 위한 학업성취 특강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10월 19일과 11월 2일 오후 3시 30분 대웅전에서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을 개최한다.



영남불교대학 약사여래불 점안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10일 3층 법당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군위 불교교양대학 개강
군위불교교양대학 법수 스님은 10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군위노인회관에서 3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한다.(011)844-0108



진도 쌍계사 국화축제 및 전시회
진도 쌍계사 주지 천현 스님은 10월 29일 '쌍계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국화전시회는 11월 20일까지 열린다.(061)542-1165



대광명인불자회 창립 14돌 법회
대구 대광명인불자회 이재달 회장은 10월 21일 오후 2시 동화사 통일약사 대불전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53)256-0114

이전 '천태종보'는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운현궁 SK HUB 오피스텔 B동 3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10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천태종보'는 또 11월부터 제호를 '금강불교신문'으로 변경한다.(02)723-1548

“밀랍주조공법으로 원형 복원 노력”

낙산사 동종 복원 맡은 원광식 주철장

“낙산사 동종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덕대왕신종 복원 경험이 있는 성종사 원광식 대표(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사진)가 지난 4월 화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을 복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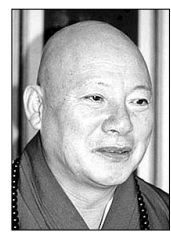
원 대표가 강원도 양양군으로부터 동종 복원 담당으로 선정된 것은 9월 23일, 실측 자료와 탁본 등을 수집해 첫 자료회의를 준비했다. 10월 12일 열린 자료회의에는 원광식 대표 외에 낙산사 동종의 탁본을 뜬 직지사 흥선 스님, 보존처리 전문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양양군 관계자, 음향학·주물·미술 전공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동참해 낙산사 동종 복원에 대해 논의했다.

원 대표가 강원도 양양군으로부터 동종 복원 담당으로 선정된 것은 9월 23일, 실측 자료와 탁본 등을 수집해 첫 자료회의를 준비했다. 10월 12일 열린 자료회의에는 원광식 대표 외에 낙산사 동종의 탁본을 뜬 직지사 흥선 스님, 보존처리 전문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양양군 관계자, 음향학·주물·미술 전공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동참해 낙산사 동종 복원에 대해 논의했다.

원 대표의 “첫 자료회의에서 전통 주조 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낙산사 동종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복원을 하는 좋은 모양, 문양 등을 기존의 동종과 똑같이 하면서 구성 성분도 최대한 원형에

몽골에 대불 건립 세계평화훈장 받아

김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



“부끄럽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데 몽골 정부에서 큰 상을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몽골 국립공원 내 자이산에 대불을 봉안, 한국과 몽골 불교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5일 몽골 정부로부터 세계평화훈장을 받은 한국불교김강선원 이사장 활안 스님(사진)은 몽골불교 중흥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활안 스님이 몽골 국립공원에 세운 대불은 높이 18m로, 이 대불 안에는 몽골 전통 대강경을 비롯해 많은 몽골 불교 유산이 소장돼 있다. 지난 9월 6일 몽골 국회는 이곳에 소장된 몽골 대강경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현명우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아미타불 점안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지하 1층 미타전 아미타불 봉안식과 5층 약사전 후불탱화 점안식이 10월 10일 봉행됐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을 증명법사로, 고양시 장안사 스님들이 집전한 이날 법회에는 이석현 일산병원장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입원 환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언론사불자권 마곡사서 템플스테이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이연재)는 10월 8~9일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열었다. KBS와 MBC 불교연구회, 경향신문 불자회의 50여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아침 예불을 비롯해 산사에서 일상을 통해 보다 나은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청불회 제3년 스님 법사로 정기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는 10월 12일 분사 법당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열었다. 법사로 초청된 경주 천주암 주지 제3년 스님은 “마음 가운데 진심과 망심이 함께 존재하는데, 망심을 놓고 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림 스님 ‘소통·참여...’ 전시회 개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기금 마련을 위한 ‘소통·참여·그리고 나눔...’ 전시회가 10월 12일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실천승가회 의장 효림 스님 등이 마련한 전시회의 수익금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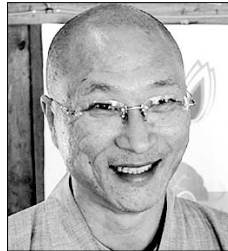
청원 석문사 제2회 경로잔치



청원 호국불교효예중 석문사(주지 혜진)는 10월 9일 남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를 열었다. 500여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석한 경로잔치에서 혜진 스님은 “오늘 하루라도 바쁜 농사일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엔 골수·장기기증 올한 시신기증 서약

선암사 사무장 지홍 스님



“중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겁니다. 불법을 실천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고마울 따름입니다”

10월 10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자비회사의 날’ 행사에서 사후 시신기증을 서약한 지홍 스님(선암사 사무장·사진)은 “수행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며 남에게 일러질까 손

다”며 “금년에 시신기증이 추가되어 초발심으로 돌아가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홍 스님이 약속한 골수 및 장기기증은 ‘생존시 장기를 나누겠다’는 서약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속가 친척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망한 것이 출가인이었다는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은 불자의 큰 실천행으로 다 같이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마음의 평화 위해 출가했어요”

태고종 스님 민하버드대 출신 대일 스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10월 1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제29기 합동독도수계신림 수계식에서 계를 받은 대일 스님(데이비드 주니가·사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대일 스님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불

교상담사리를 전공하고, 텍사스 오스틴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다.

대일 스님은 “이번 행자교육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느끼는 놀라운 경험에 스스로 감동했다”며 “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대웅전 확장 중건 대작불사 모연문

가을 단풍색이 아름답군요. 모든 불자님 성불합시다. 이곳 왕룡사원이 있는 산은 형산이라고 하며 법당 뒤 바위는 용의 머리이고 그 용의 머리 숨골에 산신각을 모셨습니다. 포항 쪽 동해안의 최고 명산으로 천 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법당이 10평정도로 협소하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어 37평으로 확장 대작불사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주축들도 놓고 목재를 다듬었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대작불사 모연을 하고자 합니다. 대명산 천년기도도량에 보시하신다면 크나큰 공덕이 될 것으로 믿고 권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만원, 이만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성을 바친다면 불자님들은 무량한 공덕의 인연을 심게 되시고 당사 법당의 불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통장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721082-52-143499 우체국 702373-02-003980 조흥은행 804-06-610190 ◇예금주: 윤시연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49-1 왕룡사원 원장 구암 윤시연·신도회 회장 대승 전달선 합장

제6회 꿈과 의식 연구생모집

꿈이 꾸는 마음(6, 7, 8의식)을 불교적 해석과 꿈의 상징언어를 해석하여 심리분석은 물론 미래예지의 신비한 비밀 원리를 강의와 연구 토론 합니다.

- 일시 : 제6회 개강 2005년 10월 27일 (양력)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강의>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2회 연구반 강의중>

● 강사 : 현오스님(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전생 저자)

- 장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93-21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출구
- 참가비용 : 교재포함 13회 참가비 12만원
- 동참문의 : 02)576-1462

대지 불교심리학연구소